

첨삭답안	연세대학교 2015 모의 인문	작성자	aawlgus 님
------	------------------	-----	-----------

**[문항 1]**

한 사회 내에는 서로 다른 개인과 타인이 존재하며,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그들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마련이다. 제시문 (가),(나),(다)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이들 중 (가)는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 개인의 불행과 행복은 운명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고 주어진 본분에만 충실하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자 행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개인과 타인이 모여 한 사회를 이루며 역할을 분담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자의 운명에 걸맞은 직분들을 개별적으로 잘 수행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역설하며, 사회구성원 간의 단절된 행복론을 주장한다.

반면 (나)와 (다)는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가)의 행복에 대한 운명론적 관점과 달리, 제시문 (나),(다)는 행복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증진시킬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1. 이에 따라 (나)의 남편은 본인의 행복 추구를 위해 아내의 도덕성을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다)의 공리주의 역시 개인과 타인의 행복을 동시에 고려하며, 이들 간에 연관성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제시문 (나)와 (다)는 추구되어야 할 행복을 어떤 관점에서 고려하느냐에 관해 입장 차이를 보인다. (나)는 개인적 관점에서 행복을 추구한다. 1. 제시문 속 아내는 그동안 남편과 유교사회라는 타인들의 가치관에 의해 본인의 행복을 억압받아왔다. 그리고 누구나 삶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깨달으며, 타인의 행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의 공리주의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행복을 추구한다. 개인과 타인의 행복의 총합이 극대화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는 (나)와 대조적으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첨삭 포인트]**

1. 제시문에 어긋난 내용은 없지만, 하나 어색한 점을 찾아보면 3문단에서는 제시문 (나)의 남편의 입장을 사용하시고, 4문단에서는 아내의 입장을 사용해 답안이 서술되었습니다. 제시문 (나)의 내용이 한 답안 내에서 일관적이지 못합니다. 이는 제시문 (나)의 내용이 같은 답안 내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좋은 논리성을 지녔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1번 지적으로 인해, 제시문 (나)의 내용이 문단에 흐름에 따라 바뀌는 점을 제외하면 형식상으로는 좋은 답안입니다. 다만 논리적 일관성이 떨어져 감점이 커질 것입니다.

**B-**

## [문항 2]

제시문 (라)의 도표는 27개 국가들의 행복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자료이다. 여기서 X축인 평균은 해당 국가에서 나타나는 국민들의 행복의 합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Y축인 표준편차는 국가 내에서 행복이 얼마나 고르게 분배되어 있는가, 즉 행복의 형평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행복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는 (나)의 관점에서 볼 때, 2. 도표 속 국가들 중 가장 이상적인 국가군은 D이다. 평균이 높으므로 전체적인 행복도가 높으며, 표준편차도 작아 그 형평성 역시 높기 때문이다. 국가군들 중 B와 C를 비교하자면 역시 행복의 형평성이 높은 C국가군이 더 이상적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제시문 (나)는 삶의 목표는 각자의 행복이며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들의 행복이 타인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비록 다수가 얻는 행복이 더 커질지라도 행복의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는 전체 행복의 양보다는 그 형평성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따라서 C국가군이 비록 B국가군에 비해 평균이 낮음으로써 전체 행복의 양이 적을지라도, 그 편차를 작게 유지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형평성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더 이상적인 것이다.

2. 한편 행복의 양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다) 역시 D국가군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 평균, 즉 전체 행복의 양이 가장 클뿐더러 그 편차가 적다는 점은 또 다른 추가적인 공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와 달리, B국가군이 C국가군보다 더 이상적이라고 평가한다. 제시문 (다)에서 주장하는 공리주의는 공동체의 이익의 총합만을 고려한다. 따라서 비록 일부 개인들의 행복이 감소할지라도 공리의 명분 하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 자료의 B국가군은 표준편차가 높고 평균도 높다. 따라서 비록 그 형평성이 부족할지언정 공리주의가 주목하는 행복의 양적인 측면에서 C국가군보다 월등히 나은 국가군인 것이다.

## [첨삭 포인트]

- 1문단을 설명하시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해서 각 국가군들의 특징을 설명해야 합니다. X축, Y축에 대한 설명은 표의 기본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발문에 따르면 B,C 국가군 사이에서 논해야 합니다. 발문의 요구에 따르지 못한 오답으로 큰 감점입니다.
- 전체적으로 좋은 답안이나 1문단과, 발문의 요구에 벗어난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정말 낮은 문제로, 예상 합격자 커트라인 점수가 높게 측정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실수가 최대한 없어야 합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그런 관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 B-

총평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답안이나 부분적인 실수로 인해 합격이 어려워보이는 답안입니다.

사전협의 없는 무단 도용,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환 논술 (煥 論述)